

# 韓國經濟의 現況과 構造調整

洪 升 基

〈東國大學校教授·經博〉

## 1. 序 論

우리나라의 經常收支가 黑字로 反轉됨에 따라 그간 우리 經濟의 高질병이었던 外債가 激減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즉 經常收支 黑字는 對內的으로 通貨膨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對外的으로는 美國과의 通商摩擦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만성적인 經常收支 赤字를 벗어난지 불과 2년만에 밀어닥친 이러한 부작용들은 勞使紛糾로 인한 賃金引上이라는 內生的 충격까지 겹쳐 우리 經濟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對內外 여건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自立經濟 구축의 分水령이 되고 있다.

## 2. 經常收支 黑字의 배경과 美國의 通商壓力

우리 經濟는 1986년에 46억 달러의 經常收支 黑字를 기록했으며 1987년에는 그 흑자규모가 98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큰 폭의 經常收支 黑字는 크게나뉘는 세가지 要因들 - 國際分業構造의 변화·3低의 채택·經濟安定化政策 - 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첫째, 國際分業構造는 현재 변화의 와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動態的 比較우위를 기반으로 分業構造內에서 地位를 높여가고 있다. 종래 美國중심의 資本主

義 국제경제질서가 日本 및 EC를 포함하는 3大軸에 의해 운영되면서 製造業 生産基地의 分權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勞動集約的 상품생산에서 資本·技術集約的 상품생산으로 移轉하면서 國際競爭力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의 黑字轉換에 바탕이 되어 왔다.

둘째, 動態的인 分業構造의 변화외에 직접적으로 黑字에 도움을 준 것은 이른바 3低 - 低달러가치·低 원유가격·低국채금리 - 의 영향 때문이었다. 1985년 9월의 G-5 회담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일본 円貨의 平價切上과 이에 따른 美國 달러貨의 약세로 日本商品에 대한 우리나라 商品의 價格競爭力은 향상되었으며 이것은 輸出증가로 연결되었다. 한편 全量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가격의 하락은 의심의 여지없이 商品輸入額을 줄이는데 공헌했고 國際金利의 引下는 外債利子負擔을 경감시키고 用役의 支給額을 낮추었다. 이러한 세가지 外生的 충격은 우리 경제의 黑字基調에 正히 영향을 미쳤다.

셋째, 對內的으로는 1982년 이래 수행해 온 構造調整政策과 經濟安定化政策이 生産性向上과 國內物價의 安定을 도모했고 나아가 輸出추진에 공헌했다. 즉 投資의 效率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한 國內産業의 構造調整은 成長 및 輸出잠재력을 회복시켰고 高金利·健全財政政策은 國內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으므로써 우리 商品의 國際競爭力을 재고시켰다.

위와 같은 要因들로 인해 1982년 이래 經常收支 赤字는 계속 急減하였고 1986년 들어 黑字로 反轉한

것이다. 환언하면 지난 2년간의 黑字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초반이래 축적된 우리 經濟의 잠재력과 對外與件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經常收支 黑字는 최근 美國과의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있다. 對美 수출편중과 對日 수입편중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黑字의 대부분을 美國과의 교역에서 얻어왔다. 환언하면 우리나라의 黑字는 美國의 赤字累增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98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우리의 對美 무역흑자는 1987년에 95억 달러에 이르러 美國의 經常收支 赤字幅을 擴大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7년에 1,538억 달러에 달한 美國의 經常收支 赤字는 근본적으로 美國 産業構造調整과 國內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생산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것은 제조업의 많은 분야에서 國際競爭力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우기 정부의 과도한 財政支出과 민간부문의 높은 消費性向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 누증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自國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러한 對內的인 요인보다는 對外的인 요인 -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 - 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強辯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通商壓力을 가하고 있다.

현재 美國은 對美 흑자순위 5位國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가혹한 壓力을 넣고 있는 느낌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의존도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資本·技術 集約的 商品의 對美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美國內 商品市場에서의 占有率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第2의 日本으로 인식하고 있는 美國側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을 통한 高度成長戰略에 일단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셋째, 美國側은 우리나라의 國際收支調整政策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높은 對美 흑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조정노력은 미흡하며 아직도 폐쇄적인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要因들로 말미암아 올들어 我國은 換率政策,

貿易政策, 外換管理政策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強度 높은 壓力을 가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國際收支 調整政策

美國으로부터의 通商壓力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元貨의 平價切上, 對外 市場開放의 가속화, 외환규제의 완화 등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조정정책들이지만 우리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 1) 元貨의 平價切上

理論적으로 元貨의 平價切上은 輸出財와 輸入財의 가격수준을 변화시키기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輸出入, 物價, 國民所得 등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國內財貨間의 상대가격의 변동을 통해 産業構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元貨切上은 우리나라 경제에 兩面的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元貨切上은 輸出業體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즉 元貨切上에 따른 수출기업의 收益減少를 기업자체내에서 흡수치 못할 경우 평균절상분은 수출품의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어 수출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元貨切上은 元貨表示 輸入價格을 하락시킴으로써 輸入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輸出감소, 輸入증대라는 부정적 영향과는 별도로 元貨切上은 元貨表示 수입가격의 하락을 통해 國內物價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들은 元貨切上의 속도와 여타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동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들어 6월 8일까지 元貨切上幅은 8.6%(年率 기준 19.5%)에 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지난 2년간에도 元貨는 달러에 대해 지속적으로 平價切上되어 왔지만 그 당시에는 여타 주요국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 큰 폭으로 切上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國際競爭力은 오히려 개선되는 기현상을 빚었다.

예를 들어 지난 1986~87 2년간 우리나라 원貨의 平價切上幅은 11.0% 로서 日本 円貨나 대만 元貨의 切上幅에 비해 각각 1/3, 1/2 수준에 머물었다.

따라서 國際市場 특히 美國市場에서 日本 및 대만의 수출지분을 잠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日本, 대만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平價切下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원貨는 빠른 속도로 切上되고 있어 달러뿐 아니라 여타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同伴切上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貨切上分の 수출가격 전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덧붙여 노동분규로 인한 賃金引上과 國際原資材 價格의 上昇은 기업의 生産費用을 높이고 있다.

더우기 經常收支 黑字는 海外部門에서의 대폭적인 통화增發을 야기시켜 國內物價가 불안해짐에 따라 통화당국은 金利調整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통화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金融費用을 높이고 經常收支 黑字基調下에서 오히려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모순을 낳게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의 수출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원高 현상에 따라 모든 企業들이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업종과 기업에 따라 수익의 兩極分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貨切上이 진행되면서 대기업보다는 中小企業에서, 자동차·전자 등 資本·技術集約型 산업보다는 봉제·섬유·신발·완구 등 勞動集約型 산업에서 채산성의 악화와 가격인상에 따른 수출감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에 原資材 및 原油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전력·가스산업 등은 輸入가격의 引下로 채산성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만약 원高에 의한 利益이 國內物價의 하락 특히 公共料金の 引下를 통해 국민경제에 확산된다면 內需를 확대하고 수출부진에서 파생된 손해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國內物價는 여전히 不安한 상태에 있고 國內 公共料金の 下方硬直性 및 복잡다기한 流通構造로

인해 원高의 이익이 경제전체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1986년 2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油價引下를 단행해 왔지만 企業의 악화된 채산성을 보전하는 데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2) 對外 市場開放

美國은 우리나라에 대해 商品市場은 물론 서비스 및 資本市場의 開放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美國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競爭基盤 확충을 통한 國內産業體質의 개선을 위해 對外 市場開放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商品市場 開放現況을 살펴보면 금년 4월 1일 145개 工產品을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추가지정함으로써 輸入自由化率이 95.4%로 높아졌다.

그리고 輸入監視 대상품목도 크게 축소하고 特別法에 의한 輸入規制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덧붙여 금년부터는 平均基本關稅率을 지난해의 19.3%에서 18.1%로 낮추었다. 한편 금년에는 廣告代行業 및 保險業에 대한 合作會社 설립을 허용하고 映畫業에 대한 外國人 진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市場의 개방도 확대하였다.

이러한 對外市場開放政策은 國際去來에 대해 直接的·選別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經濟全體로 보면 輸入擴大에 따라 일반 消費者들에게 利益을 주고 經濟體質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産業部門別로 보면 輸入競爭産業에는 큰 부담을 주고 幼稚産業 및 政策的 保護對象産業에는 중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때문에 對外市場開放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파생되고 있다.

## 3) 外換規制 및 海外投資規制의 완화

經常收支 黑字基調下에서 통화증발의 위험을 덜고 과도하게 國內에 流入된 外貨를 정상적인 對外去來活動에 사용하기 위해 1987년 7월 이래 3차례에 걸쳐 외환관리 자유화의 폭을 넓혀왔다.

그 주요한 내용은 經常貿易去來 自由化의 擴大, 外換集中制度의 완화, 海外移住費 擴大, 企業의 해외 활동관련 外換사용 제한 완화, 個人的 海外投資 自由化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對外去來 원활화를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貿易外 支給을 擴大시켜 經常收支 흑자폭을 줄여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덧붙여 과거 지나치게 규제해 왔던 外貨使用을 現實化시켰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항목중 많은 부분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한다기 보다는 소비부조를 조장하면서 外貨를 낭비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다.

따라서 필요이상의 外換管理自由化 조치보다는 黑字여분으로 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상품의 輸入을 擴大하는 편이 더 낫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 4. 經濟構造調整의 필요성과 政策 方向

우리 經濟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活路를 찾아야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만약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先進國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반면 이 고비에서 좌절한다면 外債의 누적적 증가가 반복되면서 自力成長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經常收支 黑字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通商摩擦과 노사분규의 와중에서도 지난 1/4 분기 중에는 輸出 및 설비투자의 好調勢가 지속되어 15.1%의 GNP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1/4 분기를 정점으로 4월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서서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成長을 주도해 온 수출이 5월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중 對美 수출둔화 현상은 두드러져 경기후퇴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국제경제 침체로 海外需要까지 감소한다면 몇년안에 다시 赤字로 反轉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短期的 대응방안과 中·長期的 대응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短期的으로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예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환율변동과 시장개방속도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事前 豫示制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貨切上으로 인한 輸入원자재의 국내가격인하 등의 비용절감요인을 기업에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수출입절차의 간소화와 부대비용절감대책을 추진하여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기업의 코스트를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네째, 과도한 市場開放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유치산업이나 農業部門에 대해서는 金融·財政上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단기적 대응방안들은 輸出單價引上을 억제하여 국제경쟁력의 급격한 감소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動態的 비교 우위를 再生産하면서 國際分業 構造內에서의 地位를 높여갈 수 있게 다음과 같은 中·長期的 產業構造調整政策이 實施하게 요망되고 있다.

첫째, 國內 產業別·業種別 국제경쟁력을 점검하여 첨단산업 등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공급능력확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製品差別化가 가능하게 金利, 租稅上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반면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業種轉換을 위한 단계적인 退出支援政策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對日輸入의존 및 對美 輸出특화의 가공무역을 탈피하기 위하여 輸入先 및 輸出先을 다변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海外直接投資나 合作投資를 擴大하여 生産의 國際化과정을 촉진하고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피해야 할 것이다.

네째, 그간의 정부통제 경제에서 탈피하여 市場의 자율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換率·貿易·外換管理政策 등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리와 租稅 등 總需要管理를 위한 政策수단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內需 및 輸出用 상품가격의 왜곡을 시정하고 內需와 輸出間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